

박사학위 논문

##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나 수 호

2011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선생님

본 논문은 한국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 중 트릭스터로 잘 알려진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이라는 인물을 세계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와 비교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조선후기라는 시대에 있어서 이 인물의 사회적 의의를 고찰하며 나아가 기록문학의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한국문학사적 위상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트릭스터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한국 트릭스터 연구가 세계 트릭스터 연구의 흐름과 합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경계성(liminality)이라는 개념을 트릭스터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설정했다. 이 개념은 원래 통과 의례에서 이전의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지위로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트릭스터 연구에 있어서는 모든 범주와 갈래 사이, 즉 경계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경계성은 트릭스터가 되기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계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트릭스터의 경계적인 모습을 검토하기 위해서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의 설화를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트릭스터의 형상을 논하기에 앞서 트릭스터의 거의 모든 행위의 바탕이 되는 언

어의 사용을 검토했다. 트릭스터의 언어 행위는 크게 거짓말, 상징체계 교란, 말장난으로 구분된다. 거짓말은 상대방의 논리적인 오류를 유도·이용하여 진실이 아닌 말을 믿도록 하는 것인데 트릭스터는 논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능숙하게 속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론적인 경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트릭스터가 언어의 상징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장난을 살펴보면 트릭스터는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송신자로는 수신자로는 방해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한편 희극적 언어 사용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초월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트릭스터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형상 혹은 성격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기꾼으로서의 트릭스터를 보았다. 사기 중에는 미리 계획한 사기도 있고 닥치는 대로 벌이는 즉흥적인 사기도 있는데 김선달의 사기는 대부분 계획적인 반면 방학중과 정만서의 사기는 대부분 즉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기가 계획적이든 즉흥적이든 트릭스터가 경계인으로서 표적의 희망, 욕심, 두려움 등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판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피해자로서의 트릭스터를 살펴보았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기꾼과 달리 피해자 트릭스터는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에 복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트릭스터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도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릭스터가 힘 있는 자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상대방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범주를 초월하는 경계적인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또한 트릭스터가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복미원주민 트릭스터 등과 비교해 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여자이다. 한국 트릭스터가 많이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만큼 트릭스터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음을 의미하며 주로 여자에게 당하는 양상은 여자

리는 주변성에 의한 또 다른 전복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오입쟁이로서의 트릭스터를 살펴보았다.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와 마찬가지로 한국 트릭스터 역시 오입을 통해 성욕을 채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국 트릭스터의 성욕이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들보다 덜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욕의 표출보다 성(性)과 관련된 조선 후기 사회적 규범을 공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트릭스터는 경계인이므로 엄격한 남녀유별을 요구하는 조선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트릭스터가 그의 부인과 대결할 때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부관계가 사회구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경계적인 트릭스터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트릭스터의 경계성을 정리했는데 사기꾼, 꾀쟁이, 오입쟁이라는 형상에서 주로 길에서 활약하면서 방랑하는 공간적 경계성, 보통 사람과 달리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사는 시간적 경계성, 모든 사회 규칙과 범주를 초월하는 사회적 경계성, 다가치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자기의 현실까지도 새롭게 인식하는 언어적 경계성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계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방랑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트릭스터의 사회적 의미를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와 비교하면서 특별히 트릭스터의 영웅적인 모습에 주목했다. 주로 신화적인 트릭스터들은 문화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로빈 후드와 같은 인물들은 트릭스터에서 민중영웅으로 변형된 것인데 한국 트릭스터의 경우에는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웅이란 소속집단을 위해서 행동하며 그 집단의 인정을 받지만 한국 트릭스터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인정도 못 받는다. 오히려 사회 규칙과 범주를 공격하면서 소속집단이 지지하는 사회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反)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전 트릭스터담의 등장인물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문화화 과정에서 트릭스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대의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유사한 이야기를 검토함으로써 트릭스터담이 계승한 전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전통이 방학중정 만서·김선달의 설화에서 경계적인 트릭스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신단공안』과 같은 소설에서는 트릭스터가 그 경계성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보았고 최근에 북한에서 출판된 김선달의 설화 집에서는 경계성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민중영웅으로 변화한 양상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한국 트릭스터의 경계성을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트릭스터의 경계적인 모습을 확인하였고 한국 트릭스터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기존 사회구조를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작업에서는 물러나 현존하는 질서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음을 논했다. 본 논문은 한국 트릭스터담을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담과 비교하고, 또한 한국의 기록문화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트릭스터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